

‘학폭 재판 노쇼’ 권경애 변호사 5000만원 배상 판결

등록 2024.06.11 11:03:42



[서울=뉴시스] 정병혁 기자 =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학교폭력 피해

자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된 권경애 변호사(58·사법연수원 33기)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
에 나와 심경을 밝히고 있다.

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(판사 노한동)은 학교폭력 피해자 고(故)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A법무법
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“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으로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”며 원고 일부승
소 판결했다. 2024.06.11. jhope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